2021년 5월 26일 평동교회 수요성서연구 참고성경. - Ver.1

제목 : 레위기 3. 번제 - 향기로운 냄새

본문 : 레위기 1장 1~9절 / 레위기 6:8~13

(레 1:3)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번제의 기록 -

홍수 이후에 드린 노아의 번제

(창 8: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창 8: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브라함이 드렸던 모리아산의 번제

(창 22: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 22: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창 22: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עֹלָה(5930, 올라) 번제(물), 오르막길, 계단

올라(명여)는 알라(עָלָה , 5927)에서 유래했으며, (a) '올라가는 것, 번제물, 번제', (b) '오르막 길, 계단'을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290회 나온다.

제사의 출발점 -

자원하는 마음

(레 1: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קָרְבָּן(7133, 코르반) 제물, 헌물, 예물 - 1. 코르반(명남)은 카라브(קָרַב , 7126: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에서 유래했으며, 가까이 가져오는 것, 즉 드려진 것,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희생으로 드려질" 것이라는 의미에서나(이 경우 이 단어는 모든 제의적 희생제사와 제물에 사용된다) 또는 단순히 성소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 헌물, 예물'을 의미한다(민 7:13이하, 참조: KD, Pentateuch, Ⅱ, p. 271; Vos, BT, p. 175).

제사의 종착점

(레 1: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1:13)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1:17)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אִשֶּׁה(801, 잇샤) - 화제 fire offering / 불로 드리는 제사

제사의 진행 - 레위기의 기본정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할 일 과 제사장들이 해야할 일

(레 1:3)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 1:4)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 1:5)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 1:6)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레 1:7)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고
(레 1:8)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레 1: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할 일 과 제사장들이 해야할 일

(대하 4:6)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겔 44:10)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겔 44:11)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겔 44:12)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44:13)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제사장들이 기억해야할 번제 규례 -

제단의 불에 관한 규례

(레 6:9)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 6:12)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지며
(레 6:13)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기 10장의 사건 – 다른 불을 사용한 제사장

(레 9:22)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 오니라
(레 9:23)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레 9: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 10:3)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번제의 재를 처리하는 규례

(레 6:10)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레 6:11)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반역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겔 20:40)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겔 20:41)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겔 20:42)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일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겔 20:43)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겔 20:44)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후 2:15)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관건은 제물에 있지않고 예배자에게 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제사를 받으셨고 신약시대에는 예배자의 믿음 혹은 마음을 받으신다"는 식의 이해는 전적으로 부당하다. 구약 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배자다. 예배자의 삶이 드려지지 않은 제사는 헛수고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일 뿐이다. - 김근주. p84

● 적용을 위한 기도 제목 :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지 올바로 깨닫게 하소서. 오늘 나의 예배가 주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소서.